

##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오소이<sup>1)</sup> 전해정<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년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3차 자료를 이용하여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50세 이상의 여성 응답자 2,74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통한 자료분석 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은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이 중노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손자녀 양육, 조모,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우울, 자녀관계 만족도

##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보육비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대리양육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자녀양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육을 조부모, 특히 조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Lee & Bauer, 2010). 이에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조모에게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대리양육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최인희·김영란·염지혜, 2012).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조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 중에는 조모들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신체적 및 경제적인 부담감과 다른 가족(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과의 갈등 등을 경험하고 이는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문정, 2006; 오진아, 2006).

그러나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공존한다. 즉 손자녀 양육 조모들은 돌봄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손자녀 양육을 통한 가족관계의 개선 등의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보상감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조모는 삶의 의미나 기쁨, 충만감을 느끼고, 돌봄을 통한 이러한 만족감이나 보상감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배진희, 2007; 한경혜·주지현·이정화, 2008; Hayslip, Jr. & Kaminski, 2005). 한편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에게 큰 보상이 되며(김문정, 2006; 김은정·정순돌, 2011), 손자녀 양육은 조모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다(김은정, 2012a). 이처럼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아직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중노년기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ladstone, 1989). 이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조모의 손자녀 양육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Rowe & Kahn, 1997). 정신 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노년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전혜정, 2004). 한편 정신 건강의 구조적 특성을 조명한 최근 연구들은 정신 건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호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즉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경험이 정신 건강의 긍정적 측면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 측면

을 낮추는 효과를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경험이 정신 건강의 긍정적 측면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부정적 측면의 정신 건강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신 건강을 연구할 때에는 한 연구에서 정신 건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인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측면인 우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 이런 영향이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녀양육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모에 의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손자녀 양육 경험은 조모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손자녀 양육의 현황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부모가 취업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할머니는 어린 자녀의 대리양육자로 가장 선호되는 존재이다(Lee & Bauer, 2010).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내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64.5%가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수도권 여성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기초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100세 시대 대비 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2012)에 따르면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은 하루 평균 8.86시간을 손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주일로 환산하면 평균

47.2시간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들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 보람 있다’(84.7%), ‘손자녀가 커가는 모습에 생활의 즐거움이 늘었다’(83%) 등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만 두겠다’(67.3%)는 부정적인 반응도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할머니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호소하였는데 63.7%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손자녀를 돌보며 살림까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들은 손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체력적인 부담과 개인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젊은 시절에 자녀 양육과 교육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노년 세대들이 황혼을 맞아 쉬지 못하고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며 다시 희생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황혼 육아’는 많은 여성 노인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2.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

선행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이혜자, 성명옥, 신윤아(2003)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울을 측정하였다. 또한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을 분석한 전해정(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긍정적 차원의 정신건강과 부정적 차원의 정신건강으로 구분하고, 긍정적 차원은 심리적 안녕감, 자기 숙달감(self-mastery), 자존감(self-esteem)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차원은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이 단일적 차원이 아니라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Ryff, 1989; Ryff & Keyes, 1995)에 기초하여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손자녀 양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조모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담감 및 우울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선행연구들은 손자녀 양육 조모는 비양육 조모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Minkler, Fuller-Thomson, & Driver, 1997). 또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에는 우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정, 2006; 양소정·정경미·김원경, 2008; 오진아, 2006). 손자녀 양육 조모는 손자녀의 행동 문제 뿐 아니라 생애 과업에 맞지 않는 늦은 시기에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인해 건강

및 재정의 악화, 타인과의 교류 감소, 사회활동 감소, 손자녀 양육 방법 문제로 인한 다른 가족과의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오진아, 2006). 한편 Minkler와 Roe, Robertson-Beckley(1994)는 중단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우울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손자녀 양육과 우울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많은 요구와 그로 인한 부담이 조부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Goodfellow와 Laverty(2003)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손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손자녀 양육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가족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 등의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Dolbin-MacNab, 2006), 조모의 역할이 삶의 활력소가 되며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신이 가족 내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과 가족관계의 개선 등의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보상감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김미영, 2001; 전해정 외, 2013; 한경혜 외, 2008; Reitzes & Mutran, 2004; Wheelock & Jones, 2002). 배진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 조모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부모가 되는 기회를 즐거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2012a)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이 조모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전해정 외(2013)의 연구에서도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전이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 비하면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조모들이 손자녀 돌봄을 통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삶의 의미나 기쁨, 충만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와 양육 스트레스, 양육 부담감,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로 크게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김미영, 2001; 배진희,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양소정 외, 2008). 그러나 조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두 감정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Diener et al., 199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을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측면인 우울의 두 가지로 구성하

고 손자녀 양육 경험이 각각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3.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가.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중·노년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긍정적 측면인 결속(solidarity)과 부정적 측면인 갈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최정혜, 1994). 손자녀 양육 조모는 양육을 계기로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 변화, 즉 결속의 강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Connidis, 2010), 손자녀 양육을 맡음으로 인해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가까이 살거나 함께 거주하며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녀와 정서적인 지지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손자녀 양육 방법과 교육 가치와 관련하여 자녀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최혜지(2004)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협력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 높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자녀와의 결속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조모의 손자녀 돌봄은 양육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육 부담감이 큰 조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Weber & Waldrop, 2000), 성인자녀와 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 성인자녀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Dowdell & Sherwen, 1998). 이처럼 손자녀 양육은 조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 나. 자녀와의 관계와 조모의 정신건강

서구의 많은 연구들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중노년기 부모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Sand & Goldberg-Glen, 2000; Wood & Liopsis, 2007). Kennedy와 Keeney(1988)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부모는 우울 수준이 높고,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ong & Marks, 2006). 또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며, 특히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우울 수준이 높고,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Rook, 2014).

독립과 자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와는 다르게 가족 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변수보다도 영향력이 큰 변수이다(김문정, 2009; 김희주·주경희, 2008). 특히 한국 여성 노인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조모의 정신건강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된다. 조명희(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지원이나 접촉빈도와는 독립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자녀와의 잦은 연락 빈도와 원만한 관계, 정서적인 지원은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조모의 우울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배 외, 2010).

#### 다.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손자녀 양육과 조모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에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시킨 연구들은 주로 자녀와의 관계를 조절변수로 간주해 왔다. 즉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와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인 자녀와의 질 높은 관계가 조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적응을 촉진시키며(Hayslip & Kaminski, 2005), 양육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양육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Pruchno & McKenney, 2002). 다시 말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손자녀 양육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 등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연구이지만 손자녀 양육과 조모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매개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모는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와의 연대감과 세대 간 연결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고(Wood & Liossis, 2007),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성인자녀와의 연락 빈도를 높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성인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삶의 만족

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김문정(2009)의 연구에서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은정과 정순돌(2011)의 연구, 그리고 김은정(2012b)의 연구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비확률 편의표집에 의한 소규모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 양육 스트레스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 경험 전반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닌 손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률표집에 의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한국 고령화패널연구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이하 고령화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 실태와 행위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당시 45세(1962년 이전 생)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실질적인 손자녀 돌봄은 주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미혜·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Lee & Bauer, 2010)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패널의 3차년도까지 추적된 7,920명 중 “현재 살아있는 자녀는 몇 명이십니까?”의 문항에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응답을 한 2,744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10세 이전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가 있습니까?”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261명의 여성 응답자를 손자녀 양육 여성으로 보았다.

## 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은 양육 집단은 평균 67.03세, 비양육 집단은 평균 71.18세로 양육 집단이 약 4.15세 적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양육 집단과 비양육 집단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과반수이상이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여부는 양육 집단과 비양육 집단 모두 비취업자가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집단이 16.1%, 비양육 집단이 24.3%로 비양육 집단의 취업자가 다소 많았다. 배우자 여부는 양육 집단 중 59.9%가 배우자가 있었고, 40.2%는 배우자가 없었다. 비양육 집단에서는 52.6%가 배우자가 있었고, 47.4%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조모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종교유무는 양육 집단 중 62.8%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비양육자 집단 중 57.6%가 있다고 응답하여 양육자 집단 중에 종교를 가진 경우가 다소 많았다. 건강상태는 두 집단 모두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육 집단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쁜 편’ 27.2%, ‘좋은 편’ 29.5%, ‘매우 좋음’ 3.4%, ‘최상’ 1.1%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양육자집단에서는 ‘보통’이 36.6%로 역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1%, ‘좋은 편’이 27.1%, ‘매우 좋음’이 2.5%과 ‘최상’이 0.7%의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생존 자녀수의 경우에는 손자녀 양육 집단에서는 ‘3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 27.6%, ‘4명’ 17.6%, ‘5명 이상’ 15.7%, ‘1명’ 5.7%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양육자집단에서는 ‘3명’이 26.8%로 역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6.7%, ‘2명’이 22.1%, ‘4명’이 20.1%과 ‘1명’이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변인	구분	양육여성 (N=261)	비양육여성 (N=2,483)	합계 (N=2,744)
연령	50~64세	111(42.5)	692(27.9)	803(29.3)
	65~74세	99(37.9)	883(35.6)	982(35.8)
	75~84세	42(16.1)	688(27.7)	730(26.6)
	85세 이상	9( 3.4)	220( 8.9)	229( 8.3)
	<i>M</i>	67.03세	71.18세	70.79세
	<i>(SD)</i>	(8.47)	(9.76)	(9.72)

(표 1 계속)

변인	구분	양육여성 (N=261)	비양육여성 (N=2,483)	합계 (N=2,744)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68(64.4)	1,835(73.9)	2003(73.0)
	중학교 졸업	53(20.3)	323(13.0)	376(13.7)
	고등학교 졸업	35(13.4)	281(11.3)	316(11.5)
	대학교 졸업 이상	5( 1.9)	44( 1.8)	49( 1.8)
현재 노동여부	비취업	219(83.9)	1,879(75.7)	2,098(76.5)
	취업	42(16.1)	604(24.3)	646(23.5)
혼인상태	무배우자	105(40.2)	1,177(47.4)	1,282(46.7)
	유배우자	156(59.9)	1,306(52.6)	1,462(53.3)
종교유무	종교 없음	97(37.2)	1,054(42.4)	1,151(41.9)
	종교 있음	164(62.8)	1,429(57.6)	1,593(58.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편	71(27.2)	821(33.1)	892(32.5)
	보통	101(38.7)	909(36.6)	1,010(36.8)
	좋은편	77(29.5)	674(27.1)	751(27.4)
	매우 좋음	9( 3.4)	62( 2.5)	71( 2.4)
	최상	3( 1.1)	17( 0.7)	20( 0.7)
생존 자녀수	1명	15(5.7)	106(4.3)	121(4.4)
	2명	72(27.6)	549(22.1)	621(22.6)
	3명	87(33.3)	665(26.8)	752(27.4)
	4명	46(17.6)	500(20.1)	546(19.9)
	5명 이상	41(15.7)	663(26.7)	704(25.7)

## 2. 측정변인

### 가. 독립변인

손자녀 양육 경험은 “10세 이전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가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손자녀 양육 경험자로 간주하였다. 10세 이전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에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이외에 과거에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도 포함된다.

### 나. 종속변인

####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0~100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으로 구성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을 사용하였다. CESD-10은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여러 국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임이 검증되었다(Jang, Kwag, & Chiriboga, 2010; Lee & Farran, 2004; Lee, Paddock, & Feeney, 2012). 개별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 미만)’ 1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2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3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4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 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0$ (2차)와 Cronbach’s  $\alpha=.845$ (3차)였다.

## 다. 매개변인

매개변인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0~100점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라.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3차년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현재 노동여부, 혼인상태)과 종교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 만남 횟수, 2차년도 정신건강 점수(삶의 만족도, 우울)가 포함되었다. 연령은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고령 노인으로 분류되는 75세, 최고령 노인으로 분류되는 85세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64세 이하=1’, ‘65세 이상~74세 이하=2’, ‘75세 이상~84세 이하=3’, ‘85세 이상=4’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으로 측정하였고, 현재 노동여부는 ‘취업=1’과 ‘비취업=0’으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혼인 중)=1’,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기타)=0’으로 측정하였다. 종교유무는 ‘종교 없음=0’, ‘종교 있음(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1’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0~

10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쁜편=1’, ‘보통=2’, ‘좋은편=3’, ‘매우 좋음=4’, ‘최상=5’로 측정하였다. 친한 사람들과 만남 횟수는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 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1-10 범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나는 횟수가 많은 것이다. 2차년도 정신건강 점수는 2차년도 우울 점수와 삶의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에 따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더 적게 나타나거나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3단계 회귀분석은 각 단계의 회귀계수만을 비교하게 되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 시 연구대상의 3차년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현재 노동여부, 혼인상태)과 종교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 만남 횟수, 2차년도 정신건강 점수(삶의 만족도, 우울)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02~1.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의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로 측정하였으며,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61.07점, 비경험 여성이 57.59점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3.48점 더 높았다. 우울은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17.95점, 비경험 여성이 18.85점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0.9점 더 낮았다. 또한,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71.49점, 비경험 여성이 67.48점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4.01점 더 높았다.

### 2.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2〉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N=2,744)

측정변인	3차년도 삶의 만족도		3차년도 우울	
	B	$\beta$	B	$\beta$
<b>통제변인</b>				
(상수)	16.353		17.514	
연령	-.323	-.016	-.219	-.034
교육수준	.683	.028	-.134	-.017
노동여부	.205	.005	-.573	-.041*
혼인상태	-.461	-.013	-.376	-.032
종교유무	1.574	.042**	.215	.018
주관적 경제상태	.442	.515***	-.043	-.155***
주관적 건강상태	1.139	.054**	-.915	-.135***
친한사람 만남횟수	.592	.084***	-.225	-.099***
2차년도 삶의 만족도	.204	.212***		
2차년도 우울			.420	.420***
<b>독립변인</b>				
손자녀 양육 경험	2.181	.035*	-.235	-.012
$R^2$		.475		.345
F		249.165***		145.696***

\* $p < .05$ , \*\* $p < .01$  \*\*\* $p < .001$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은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5, p<.05$ ). 즉, 연령, 교육수준, 현재 노동여부, 혼인상태, 종교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만남횟수, 2차년도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중노년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을 통제하지 않은 모델에서도 동일하였다

### 3.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된 삶의 만족도만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독립변수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효과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가.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측정변인	(N=2,744)					
	1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	$\beta$	B	$\beta$	B	$\beta$
<b>통제변인</b>						
(상수)	42.136		16.353		15.983	
연령	-1.398	-.071**	-.323	-.016	.160	.008

(표 3 계속)

측정변인	1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	$\beta$	B	$\beta$	B	$\beta$
교육수준	-.153	-.006	.683	.028	.736	.031*
현재 노동여부	-.954	-.022	.205	.005	.535	.012
혼인상태	1.286	.035	-.461	-.013	-.906	-.025
종교유무	1.592	.043*	1.574	.042**	1.023	.028*
주관적 경제상태	.294	.343***	.442	.515***	.341	.397***
주관적 건강상태	-1.501	-.072***	1.139	.054**	1.658	.079***
친한사람 만남횟수	.698	.100***	.592	.084***	.350	.050***
2차년도 삶의 만족도	.182	.189***	.204	.212***	.141	.147***
<b>독립변인</b>						
손자녀 양육 경험	2.757	.044**	2.181	.035*	1.228	.020
<b>매개변인</b>						
자녀와의관계 만족도					.346	.345***
$F^2$	.237		.475		.566	
F	86.178***		249.165***		325.988***	

\* $p<.05$ , \*\* $p<.01$ , \*\*\* $p<.001$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정 절차 1단계 분석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은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4$ ,  $p<.01$ ). 2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손자녀 양육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beta=.035$ ,  $p<.05$ ).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손자녀 양육 경험과 매개변인인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를 함께 투입한 결과,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손자녀 양육 경험 변수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약 43% 감소하였다( $\beta=.035 \rightarrow \beta=.020$ ). 이는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perfect mediator) 함을 의미한다. <표 3>에서 실시한 3단계 회귀분석은 각 단계의 회귀계수만을 비교하게 되므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의 효과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 Test 통계량이 2.598로 유의미한 것으로( $p<.01$ )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통제하지 않은 모델에서도 동일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삶의 만족도와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살펴본 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의 효과는 정신건강의 측정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손자녀 양육 경험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역할 또는 경험이 정신건강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신건강 관련 학계의 주장(Ryff, 1989; Ryff & Keyes, 1995)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둘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우울과 무관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우울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미혜·김혜선, 2004; Musil, 1998)과는 대조가 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손자녀 양육이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김미혜·김혜선(2004)의 연구, 그리고 Musil(1998)의 연구는 조손가족의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서의 대리양육 차원에서의 조모에 의한 양육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따른 차이로 인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된다. 즉 조손가족의 조모는 경제적 빈곤을 비롯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황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 연구의 대상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던 것인데(김미혜·김혜선, 2004), 본 연구 대상은 조손가족의 조모와는 사회인구학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추론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규명한 반면(Musil, 1998),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경험만을 독립변인으로 두었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중노년 여성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며, 이러한 보상감이 조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김미영, 2001; 한경혜 외, 2008). 즉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중노년 여성은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손자녀와 잦은 교류를 하게 되고 이로부터 에너지와 만족감을 얻으며, 나아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손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친밀한 유대감과 이로 인한 행복감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김문정, 2006; 김은정·정순돌,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Carstensen(1992)이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을 통해 설명해볼 수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핵심은 노년기에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인식하여서 정서적 만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선택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은 감소할 수 있으나 그 관계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Hendrics & Cutler, 2004). 이 뿐 아니라 노년기에는 성공이나 향후 이득이 되는 관계보다는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거나 현재 의미 있게 느껴지고 정서적 만족을 주는 관계를 추구한다(Carstensen & Lockenhoff, 2003). 조모에게 있어 손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엇보다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중노년 여성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정서적으로 큰 만족을 주는 손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삶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손자녀 양육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지속이론에서는 개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이 잃어버린 역할을 비슷한 역할로 대체하며 심리적 속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지속성은 개인이 친숙하게 느끼는 역할들을 유지함으로써 인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Atchley, 1989). 이를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을 이해하는데 적용해보면, 중노년 여성에게 있어 손자녀 양육은 과거에 자녀를 양육했던 역할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제 2의 기회로서 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중노년 여성에게 손자녀 양육의 역할은 지난 세월 자녀를 양육했던 때 이미 경험한 역할이고, 친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자아정체감의 회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ayslip Jr. & Goldberg-Glen, 2000).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과거 자녀를 양육할 때와 달리 연륜과 지혜를 손자녀 양육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역할을 점유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유능감을 느끼고,

나아가 손자녀 양육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등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Burton, 1992). 이처럼 중노년 여성이 손자녀 양육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과 지속이론 모두, 관계나 역할, 또는 활동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 2005), 혹은 0세아처럼 너무 어린 영아의 경우 기관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서(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 2012) 조부모에 의한 개인 양육이 선호되고 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조부모들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맞벌이 가정내 조부모의 양육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손자녀 양육의 이유 1순위로 나타났다(백선정·고지영·양정선·백현식, 2011). 이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과 지속이론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조부모들의 경우 비자발적인 손자녀 양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손자녀 양육과 조모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 양육 경험은 중노년 여성의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세대와의 연결감과 연대감을 느끼는 등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하고(Wood & Liossis, 2007),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상쇄하고도 남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문정, 2006; Pruchno & McKenney,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중노년 여성은 손자녀를 양육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동배 외, 2010; 김은정, 2012b)을 고려할 때, 자녀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손자녀 양육 조모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국 수준의 대규모 자료에 의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매체에 의해 형성된 황혼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는 다소 상반된다. 따라서 전해정과 동료들(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손자녀 양육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일부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전혜정 외, 2013, 재인용).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서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54.5%가, 그리고 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44.9% 조부모로부터 자녀 양육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의 양적 혹은 질적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 중노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손자녀 양육은 규범적인 사건(normative event)이라 할 만큼 다수가 경험하는 사건임을 시사한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김은정, 2012a),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기 여성에게 보편적인 경험이 된 상황에서 손자녀 양육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황혼육아를 조망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자녀 양육 여성의 어려움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의 일상에 손자녀 양육이 보람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부분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기 조모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본 연구가 손자녀 양육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손자녀 양육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나, 50세 이상의 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얻는 보상이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손자녀 양육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신체적인 부담과 더불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른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나 개인적인 여가활동이 제한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하정화·김현지·이옥경·허정윤, 2013). 특히 양육을 조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조모가 느끼는 부담은 조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시키고 그 결과 손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을 상쇄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육아를 조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늘리고 개별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보육지원책을 간구하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등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정책 및 육아정책 수립 시 조모에 의한 육아를 보육 및 육아 정책의 한 가지 영역으로 채택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나아가 조부모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예컨대 황혼육아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황혼육아를 하는 조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대상을 손자녀 양육 조모 뿐 아니라 손자녀를 맡기는 자녀 세대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모 당사자만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 양육을 맡기는 성인 자녀 또한 황혼육아를 담당하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알아야만 조모와 자녀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세대 모두에게 손자녀 양육을 통해 재형성되는 조모-성인자녀 관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손자녀의 양육 방법과 교육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결 방안, 조모의 건강관리 방법 등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손자녀 양육이 중노년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하였다는 본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손자녀 양육 경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 양육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김동배 외, 2010; 김문정, 2009; 조명희, 2000; Kennedy & Keeney, 1988; Sand & Goldberg-Glen, 2000; Wood & Liopsis, 2007), 특히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김희주·주경희, 2008), 손자녀 양육 여성에 대한 개입에서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육을 맡기는 성인 자녀는 조모의 육아방법을 존중하여야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패널 자료를 이차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완료된 자료에서 변수를 추출해서 사용함으로써 인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투입된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의 경우 조모가 양육한 손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측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정신건강을 저해한다는 보고와, 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 측면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Rook, 2014; Rook, Luong, Sorkin, Newsom, Krause, 2012)를 고려하여, 자녀와의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시 만족도나 친밀감 등 관계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과도한 요구 등 관계의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engtson과 Roberts (1991)의 가족결속도 이론(family solidarity theory)에 기초하여, 애정적 결속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측면 이외에 관계의 다른 측면들 예컨대, 자녀와의 접촉 빈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접촉적 결속이나, 기능적 결속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 변수, 규범적 결속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나 효의식 수준 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적 특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손자녀 양육 경험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경로와 기저 기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라 할지라도 손자녀 돌봄의 동기, 손자녀와의 관계(외손주인지 친손주인지),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 돌봄으로 인한 대가 여부 및 대가의 수준, 돌봄 시간, 양육의 범위(주양육자인지 보조양육자인지), 조손가족 여부 등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 또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또는 통제변인으로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손자녀 양육이 일어나는 맥락적 특성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보다 정교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 사례 2,744명 중 손자녀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261명에 불과해, 양육경험자와 비양육경험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수가 200명 이상이면 통계적 파워가 충분하고(Alkharusi, 2012), 종속변수의 분포에 있어 양육경험자 집단과 비양육경험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파워를 고려하여 손자녀 양육 조모 집단의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손자녀 양육 경험을 10세 이전의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손자녀 양육집단에는 10세 이전의 손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조모와 더불어 과거에는 양육을 하였으나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조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경험과 과거의 양육경험은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여 손자녀 양육 경험의 효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확률표집법에 의한 전국단위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2차년도 정신건강 점수를 통제하는 내생변수를 포함하는 모델(models with endogenous variables)을 채택함으로써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 여성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손자녀 양육이 조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어서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발견함으로써 손자녀 양육 조모를 위한 개입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배·박은영·김세진(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83-209.
- 김문정(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혜·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은정·정순돌(2011).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김은정(2012a).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보상감 및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51-867.
- 김은정(2012b). 맞벌이가정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자녀관계,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7(2), 25-48.
- 김희주·주경희(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4), 67-94.
- 백경숙·김영란(2006). 손자녀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백선정·고지영·양정선·백현식(2011). 맞벌이 가정내 조부모의 양육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영아가정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송지은·Marks(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 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양소정·정경미·김원경(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15-432.
-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이혜자·성명옥·신윤아(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혜정(2004).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종단적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1), 89-105.
- 전혜정·조규영·박민경·한세황·Wassel, J. I.(2013). 손자녀 양육자료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2).
- 조명희(200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97.
- 최인희·김영란·염지혜(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최혜지(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07-222.

- 하정화·김현지·이옥경·허정윤(2013). 부산지역 맞벌이가정의 조부모 손자녀양육 실태 및 욕구 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경혜·주지현·이정화(2008).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한국노년학*, 28(4), 1147-1164.
- Alkharusi, H. (2012). Categorical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A comparison of dummy and effect co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4(2), 202-210.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gtson, V. L. & Roberts, R.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856-870.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arstensen, L. L., & Lockenhoff, C. E. (2003). Aging, emotion, and evolution: The bigger pictur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00, 152-179.
- Connidis, I. A. (2010). *Family ties and aging*. LA: Pine Forge Pres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lbin-MacNab, M. 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 564-575.
- Dowdell, E. B., & Sherwen, L.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 8-13.
- Gladstone, J. W. (1989). Grandmother-grandchild contact: The mediating influence of the middle generation following marriage breakdown and remarriage. *Canadian Journal on Aging*, 8(4), 355-365.
- Goodfellow, J., & Lavery, J. (2003). Grandparents supporting working families. *Family Matters*, 66, 14-19.
- Hayslip, Jr. B., & Kaminski, A. (2005).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45(2), 262-269.

- Hayslip, Jr. B., & Goldberg-Glen, R. (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Springer Publications.
- Jang, Y., Kwag, K. H., & Chiriboga, D. A. (2010). Not Saying I Am Happy Does Not Mean I Am Not: Cultural Influences on Responses to Positive Affect Items in the CES-D.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5B*, 684-690.
- Kennedy, J., & Keeney, V. (1988). The extended family revisited: Grandparents rearing grand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19*, 26-35.
- Lee, J., & Bauer, J. W. (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 455-475.
- Lee, E. E., & Farran, C. J. (2004). Depression amo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5*, 18-25.
- Lee, J., Paddock, S. M., & Feeney, K. (2012). Emotional Distress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Older Couples: A Dyadic Analysi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1) 113 - 140.
- Minkler, M., Fuller-Thomson, E., &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 of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 445-452.
- Minkler, M., Roe, K. M., & Robertson-Beckley, R. J. (1994). Raising grandchildren from crack-cocaine households: Effect on family and friendship ties of African-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 20-31.
- Musil, C.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5), 441-455.
- Pruchno, R., & Mckenney, D. (2002).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Examination of a two-factor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 444-45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Grandparent identity, intergenerational family identity, and well-be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4), S213-S219.
- Rook, K. S. (2014). The health effects of negative social exchanges in later life. *Generations, 38*(1), 15-23.

- Rook, K. S., Luong, G., Sorkin, D. H., Newsom, J. T., & Krause, N. (2012). Ambivalent versus problematic social tie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health, functional health, and interpersonal coping. *Psychology and Aging* 27(4): 912 - 23.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Weber, J. A., & Waldrop, D. (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transi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27-46.
- Wheelock, J., & Jones, K. (2002). Grandparents are the nest best thing: Informal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in urban Brit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1(3), 441-464.
- Wood, S., & Liopsis, A. (2007). Potentially stressful life events and emotional closeness between grandparents and adult grand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 28(3), 380-398.

·논문접수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6월 12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교신저자: 전해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메일 hjjun@yonsei.ac.kr

## Abstract

### **The Influence of Caring Grandchildren on Mental Health of Middle-Elderly Women: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the Grandmother-Adult Child Relationship**

Soy Oh and Hey-Jung 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aising grandchildren on middle-elderly women's mental health. The study looked at two aspects of middle-elderly women's mental health,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pression. It also examined if the association between grandchild-rearing and mental health was mediated by the satisfaction in grandmother-adult child relationship. In this study, middle-elderly women raising their grandchildren are defined as women who have experience raising grandchildren under age 10.

The final sample of 2,744 female respondents over 50 with more than one child was selected from 7,920 who were tracked until the third wave of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Measured variables were grandchild-rearing experience, mental health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 children. SPSS WIN 21.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raising grandchildren affects middle-elderly women's mental health. Also, Sobel test was conducted after perform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if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adult childre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grandchild-rearing and middle-elderly women's menta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aising grandchildren had an impact on middle-elderly women's mental health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other words, grandchild-rearing caused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elderly women, while no evidence was found to prove its impact on depression. Second, the satisfaction in a grandmother-adult child relationship mediated between grandchild-rearing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middle-elderly women's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increased by raising their grandchildren, with indirect effects from satisfaction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 child.

Key words: grandchildren care, grandmother,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grandmother-adult child relationships